

## 지역약국 방문 성인의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 평가

이 유 정<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Received December 23, 2010; Revised April 25, 2011; Accepted April 28, 2011)

## Evaluation of Adults' Knowledge on Generic Medications in Korea

Yu Jeung Lee<sup>#</sup>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Abstract** — Generic medication market has been increased for economic reasons in Korea. Health authorities worldwide recommend the use of generic medications nowadays. However, patients in Korea are not familiar with the generic medications and considerable percent of those do not know the definition of the generic med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dults' knowledge and perception on the generic medications at community pharmacies in Korea. This study was a 11-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from August 9, 2010 to August 27, 2010. Of the 204 respondents, 63 (30.9%) responded that they knew what a generic medication was, but only 16 (25.4%) of those answered that generic medications had the same efficacy as brand medications. When pharmacists were the source of generic medication information, more patients reported having knowledge about the definition of generic medications correctly compared with other sources. Patients with negative experience with generic medications within 6 months were more reluctant to generic substitution suggested by a pharmacist than those with positive exper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the best way to provide generic medication information for patients.

**Keywords** □ generic medications, knowledge, community pharmacy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면 제네릭 의약품이란 신약 또는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의약품(대조약)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을 통해 대조약과 동등함을 입증한 의약품을 의미한다.<sup>1)</sup> 미국에서도 미국 식품의약품(FDA)은 제네릭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은 필수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sup>2)</sup>

제네릭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신약 또는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의약품(대조약) 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기에 적절하게 사용 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3)</sup>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은 2002년 26%에서 2006년 48%까지 확대되었으며, 연평균 36%의 증가율로 급성장하여 2006년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약 기술

기반이 취약한 국내 의약품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sup>4)</sup>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또는 환자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sup>5)</sup>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책으로는 의사, 약사, 또는 환자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할 경우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을 내린 의약품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품목리스트에 있는 동일 성분의 낮은 가격인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계의 여러 보건 당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종종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환자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sup>7)</sup>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가 원개발사 의약품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도 한다.

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기 위해

<sup>#</sup>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저자에게로  
(전화) 02-2077-7545 (팩스) 02-3477-7343  
(E-mail) yujeung@sookmyung.ac.kr

서는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따라서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대체조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궁극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 크기 및 건강보험제정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환자들이 제네릭 의약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약국 방문 성인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약국 3군데를 선정하여 약국을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약국 선정은 연구자로부터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교육받은 3명의 약사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약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인 복용 목적으로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성인 환자들에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조사를 수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조사자가 충분히 설문내용을 대상자에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8월 9일부터 2010년 8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지역약국을 방문한 성인 환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11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원',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의향'의 4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4개, 3개, 2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원' 항목은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개념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 있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 항목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 여부와 사용해 본 경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의향'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의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과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폐쇄형 질문이었으며,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결과와 약사의 대체조제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

항만 선택할 수 있는 답변으로 '기타' 항목이 있어 개방형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은 우선 설문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빈도분석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환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개념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약사의 대체조제 권유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역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8.0과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는 총 204부가 회수되었으며 3군데 약국에서 각각 62(30.4%), 70(34.3%), 72(35.3%)부가 회수되어 약국 간 연구 대상자 수는 대체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모든 약국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었다.

총 204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이 61명(29.9%), 여성이 143명(70.1%)이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모든 약국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었고 설문조사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져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은 20대 응답자가 30명(14.7%), 30대 응답자가 51명(25.0%), 40대 응답자가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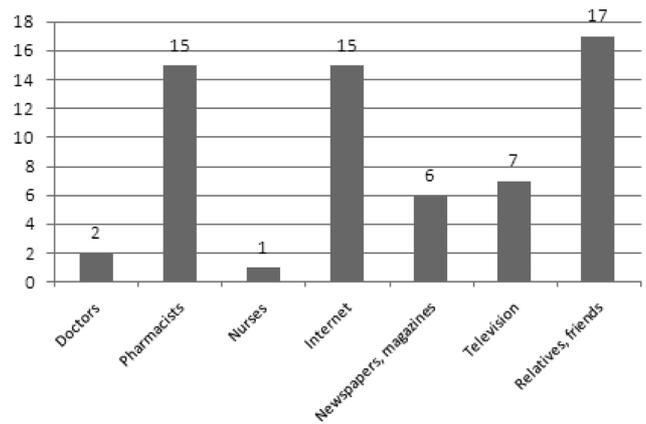
Table I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arameter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61	29.9
	Female	143	70.1
	Total	204	100.0
Age	20s	30	14.7
	30s	51	25.0
	40s	61	29.9
	50s	48	23.5
	Over 60	14	6.9
	Total	204	100.0
Education	High school level	121	59.3
	University level	79	38.7
	Graduate school level	4	2.0
	Total	204	100.0
Self-perception of health	Good	70	34.3
	Fair	101	49.5
	Poor	33	16.2
	Total	204	100.0

명(29.9%), 50대 응답자가 48명(23.5%), 60대 이상 응답자가 14명(6.9%)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21명(59.3%), 대학교 졸업이 79명(38.7%), 대학원 졸업이 4명(2.0%)이었다. 자가평가 건강상태는 '좋다'라고 응답한 환자가 70명(34.3%), '보통'이 101명(49.5%), '나쁘다'가 33명(16.2%)이었다(Table I).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원**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63명(30.9%)이었다. 성별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안다고 응답한 경우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0.295). 반면에 연령, 최종학력, 건강상태에 따라 교차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안다고 응답한 경우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유의확률<0.05). 20대는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명(4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100.0%), 50대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2명(87.5%)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19.8%)으로 낮은 비율이었으나,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의 경우 각각 37명(46.8%), 2명(50.0%)이었다.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좋다'의 경우 20명(28.6%), '보통'의 경우 38명(37.6%), '나쁘다'의 경우 5명(15.2%)이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총 63명 중에서 제네릭 의약품 정보를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부터 얻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7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는 15명(23.8%)이었으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도 15명(23.8%)이었다. 텔레비전은 7명(11.1%), 잡지 또는 신문은 6명(9.5%), 의사는 2명(3.2%), 간호사는 1명(1.6%)이었다(Fig. 1). 성별 또는 최종학력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



**Fig. 1** – Patients' sources of generic medication information.

은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유의확률=각각 0.768, 0.464). 연령에 따라서는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유의확률=0.028), 20대와 30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명(46.2%), 8명(38.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0대는 친인척 또는 지인이 9명(39.1%), 50대는 텔레비전이 2명(33.3%)으로 가장 높았다(Table II).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유의확률=0.007). '좋다'의 경우 인터넷이 9명(45.0%)이었고 '보통'의 경우 친인척 또는 지인이 12명(31.6%), 약사가 8명(21.1%)이었다. '나쁘다'의 경우는 친인척 또는 지인이 4명(80.0%), 의사가 1명(20.0%)이었다.

총 64명의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환자들 중 '오리지널 의약품(원개발사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6명(25.4%),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은 의약품'은 13명(20.6%),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능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은 9명(14.3%), '오리지널 의약품과 모양 및 색상이 다른 의약품'은 4명(6.3%), '오

**Table II** – Sources of generic medi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age groups

Age	Sources of generic medication information							Total	X <sup>2</sup> (p)
	Doctors	Pharmacists	Nurses	Internet	Newspapers, magazines	Television	Relatives, friends		
20s	0	4	0	6	0	0	3	13	31.087 (0.028)
	0.0%	30.8%	0.0%	46.2%	0.0%	0.0%	23.1%	100.0%	
30s	2	2	0	8	1	4	4	21	
	9.5%	9.5%	0.0%	38.1%	4.8%	19.0%	19.0%	100.0%	
40s	0	8	1	0	4	1	9	23	
	0.0%	34.8%	4.3%	0.0%	17.4%	4.3%	39.1%	100.0%	
50s	0	1	0	1	1	2	1	6	
	0.0%	16.7%	0.0%	16.7%	16.7%	33.3%	16.7%	100.0%	
Total	2	15	1	15	6	7	17	63	
	3.2%	23.8%	1.6%	23.8%	9.5%	11.1%	27.0%	100.0%	

Table III – Knowledge regarding generic medications

Sources of generic medication information	What is a generic medication?					Total	$X^2$ (p)
	Same efficacy as brand	Cheaper than brand	Less efficacy than brand	Different color and shape than brand	Different manufacturer than brand		
Doctors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46.127 (0.004)
Pharmacists	10 66.7%	2 13.3%	0 0.0%	1 6.7%	2 13.3%	15 100.0%	
Nurses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Internet	2 13.3%	1 6.7%	2 13.3%	1 6.7%	9 60.0%	15 100.0%	
Newspapers, magazines	0 0.0%	0 0.0%	2 33.3%	1 16.7%	3 50.0%	6 100.0%	
Television	3 42.9%	1 14.3%	0 0.0%	1 14.3%	2 28.6%	7 100.0%	
Relatives, friends	1 5.9%	8 47.1%	4 23.5%	0 0.0%	4 23.5%	17 100.0%	
Total	16 25.4%	13 20.6%	9 14.3%	4 6.3%	21 33.3%	63 100.0%	

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와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은 21명(33.3%)이었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정의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각각 0.508, 0.365, 0.738, 0.055).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서는 제네릭 의약품 정의에 대한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유의확률=0.004). 약사를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이라고 응답한 환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라고 답한 경우가 10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와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9명(60.0%), 친인척 또는 지인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은 의약품'을 선택한 경우가 8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III).

####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

최근 6개월 이내에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환자는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총 63명 중 24명(38.1%)이었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24명 중 8명(33.3%)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효과가 동등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7명(29.2%)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효능효과가 떨어진다', 1명(4.2%)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이상반응이 많이 나타난다', 8명(33.3%)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에는 '모르겠음'이라고 답한 경우가 5명(62.5%)이었다.

####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의향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총 63명 중 34

Table IV – Intention of generic substitution according to experience with a generic medication

Experience with a generic medication	Do you agree with generic substitution suggested by a pharmacist?		Total	$X^2$ (p)
	Yes	No		
Same efficacy as brand	6 75.0%	2 25.0%	8 100.0%	8.464 (0.037)
Less efficacy than brand	1 14.3%	6 85.7%	7 100.0%	
More adverse effects than brand	0 0.0%	1 100.0%	1 100.0%	
Etcetera	6 75.0%	2 25.0%	8 100.0%	
Total	13 54.2%	11 45.8%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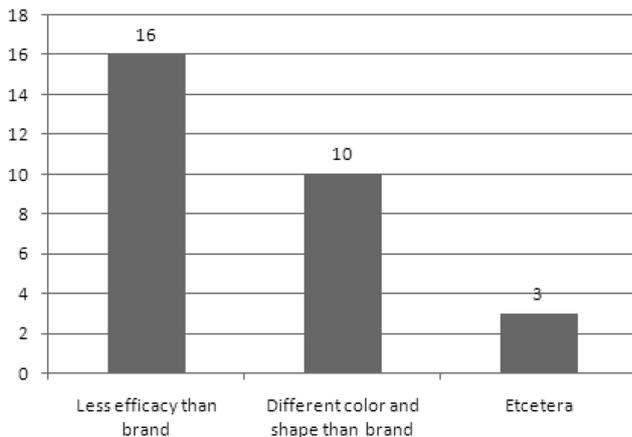


Fig. 2 – Reasons why patients do not agree with generic substitution.

명(54.0%)이 약사가 처방전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의향은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0.980).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결과에 따라서는 환자의 대체조제 의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유의확률=0.037).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6명(75.0%)이 약사의 대체조제 권유에 동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효능효과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명(85.7%),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이상반응이 많이 나타난다'의 경우에는 1명(100.0%)이 약사의 대체조제 권유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Table IV). 약사의 제네릭 대체조제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효능효과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떨어진다고 16명(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복용하던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모양 및 색상이라 불안하다'가 10명(34.5%), '기타'가 3명(10.3%)이었다. '기타'를 선택한 후 추가적으로 대체조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응답자는 없었다(Fig. 2).

## 고찰 및 결론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네릭의약품 정보방'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국민에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국내 상황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약국 방문 성인 환자들 중 30.9%만이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4%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현재 국내 환자들의 제네릭 의약품정보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66.7%의 환자들이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정보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임을 감안할 때 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 환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약사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전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sup>8)</sup> 과거 제네릭 의약품 사용 시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효능효과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환자들 중 85.7%가 약사의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권유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결과는 환자의 과거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결과가 대체조제 동의 여부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에서 최근 시행된 연구에서는 20% 이상의 환자들이 처방전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에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이전에 복용하였던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약효가 열등함을 경험하였거나 이전보다 심한 이상반응 혹은 새로운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sup>9)</sup> 제네릭 의약품 사용 시 환자들이 열등한 약효와 현저히 증가한 또는 새로운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열등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둘째,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한 이상반응 연구에 의하면, 약 25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대상 15개 의약품 중 7개 의약품의 이상반응 보고가 현격히 증가하였다.<sup>10)</sup> 이전 2006년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관련 사건이 있었다. 2010년 12월 2일 국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련 데이터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경우 제약사에게 관련 매출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신규 상정하였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철저한 검열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이 서울시에 위치한 지역약국 방문 성인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약국 방문 성인들도 포함한 표본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이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실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본 연구 결과 보다 낮을 수 있다. 셋째, 제네릭 의약품 사용 경험에 있어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제네

릭 의약품이 어떤 계열의 의약품인지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제네릭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환자는 매우 적었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와 제네릭 의약품 사용 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약사의 제네릭 의약품 관련 환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철저한 검열 및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는 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연구는 설문 대상과 방식에 한계점이 있지만 지역약국 방문 성인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를 파악하였고, 이는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제네릭의약품 정보방. Copyright© 2009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http://opendrug.kfda.go.kr/generic/genericInfo/summary/generic01.jsp> (accessed on December 20, 2010).
- 2) Meyer, M. C. :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generic drug products. *J. Clin. Psychol.* **62**, 4 (2001).
- 3) Perry, G. : The European pharmaceutical market in review: 2006 and beyond. *J. Generic Med.* **4**, 4 (2006).
- 4) Industry Report(제약산업). 한국신용평가정보. 2007.8. (2007).
- 5) Kanavos, P and Taylor, D. : Pharmacy discounts on generic medicines in France: is there room for further efficiency savings? *Curr. Med. Res. Opin.* **23**, 2467 (2007).
- 6) Meredith, P. A. : Generic drugs. Therapeutic equivalence. *Drug Saf.* **15**, 233 (1996).
- 7) Meredith, P. : Bioequivalence and other unresolved issues in generic drug substitution. *Clin. Ther.* **25**, 2875 (2003).
- 8) Mott, D. A. and Cline, R. R. : Exploring generic drug use behavior: the role of prescribers and pharmacists in the opportunity for generic drug use and generic substitution. *Med. Care* **40**, 662 (2002).
- 9) Johnston, A. : Challenges of therapeutic substitution of drugs for economic reasons: focus on CVD prevention. *Curr. Med. Res. Opin.* **26**, 871 (2010).
- 10) Hellstrom, J. and Rudholm, N. : Side effects of generic competition? *Eur. J. Health Econ.* **5**, 203 (2004).

<부록>

### ‘지역약국 방문 성인의 제네릭 의약품 인식도 평가’ 설문지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설문답변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각각의 질문에서 귀하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최종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4.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신다면?

- ① 좋다      ② 보통      ③ 나쁘다

5. 제네릭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5번 질문에서 ‘① 네’라고 답하신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6. 제네릭 의약품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 ① 의사      ② 약사      ③ 간호사      ④ 인터넷      ⑤ 잡지 또는 신문  
⑥ 텔레비전      ⑦ 의약품 설명서      ⑧친인척 또는 지인

7. 제네릭 의약품은 무엇입니까?

- ①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한 의약품  
②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값이 싼 의약품  
③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능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의약품  
④ 오리지널 의약품과 모양 및 색상이 다른 의약품  
⑤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와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8. 최근 6개월 이내에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해보셨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9. 8번에서 ‘① 네’에 답하신 경우 사용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하였다.  
②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효능효과가 떨어진다.  
③ 부작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④ 기타 ( \_\_\_\_\_ )

10. 약사가 처방전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유할 경우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오

(10번 질문에서 '② 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11. 약사의 제네릭 의약품 대체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능효과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떨어진다.  
② 부작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③ 복용하던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모양 및 색상이라 왠지 불안하다.  
④ 기타 ( \_\_\_\_\_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